

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 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1880년대에는 Norman Kerr가 “중독(addiction)”이라는 개념을 완성시켜서 아편의 상습적 복용을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disease)”으로 규정하는 데 공헌했다. 이러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에 힘입어 1908년에 개정된 제약법에서는 아편과 아편을 포함한 모든 마약이 비소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868제약법은 마약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조연자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의사들이 이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과 1868년의 통과를 기점으로 아편문제를 의학적인 문제로 바꾸어 인식하게 되었다. 1868년 이후 의사들의 마약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는 바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의사들이 일찍부터 “사회문제”였던 아편중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래서 일찌던 행동으로 1857년에 상정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 아니면 최소한 Taylor와 같은 의사가 몇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醫零」에 나타난 茶山 丁若鏞의 「醫」에 대한 태도

서울대 김 대 원

茶山이 살았던 시대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으로서, 구시대적 폐단들이 여러방면으로 노출되면서 새로운 시대에로의 전환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

던 시기였다. 茶山은 이런 움직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유배지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의 방대한 저작 중에는 ‘醫’에 관계된 저작도 있어, 이것을 통해 그가 목격한 ‘醫’에 관련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도 볼 수 있다.

‘醫’에 관련된 저작은 다음과 같다. 의학 분야에 관한 저작으로는 마진 전문서적인 「麻科會通」, ‘醫’에 관한 여러 문제를 정리한 「醫零」이 있다. 「欽欽新書」를 통해 茶山の 법의학적 지식을 알 수 있으며, 「牧民心書」의 관질편에는 茶山の 의료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經世遺表」에서는 의료와 구휼 등과 관련된 의료기구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이러한 茶山の 저작 중 「麻科會通」과 「醫零」을 제외한 책들은 의학에 대한 전문서적이 아니어서, 이 책들을 통해서도 茶山の 의학의 내용과 醫에 대한 태도를 잘 알 수 없다. 「麻科會通」도 마진에 관계된 내용만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茶山 의학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반해 「醫零」은 의학이론에 대한 비판, 약재 다루는 법, 經驗方의 소개 등의 ‘醫’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된 책으로, 이 책을 통해 茶山の ‘醫’에 대한 태도와 의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茶山은 왜 의령을 저술한 것일까. 우선 「醫零」의 저작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연도가 1808에서 1811년 사이로, 유배지에서 저술된 후기 저작이란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민중들이 겪는 의료상실, 즉 이들에게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민중들은 醫者들의 처방을 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며, 醫者들은 나름대로 병의 원리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茶山の 지적대로 “병에 의사가 없는지 오래”인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茶山은 민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經驗方을 정리하였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醫者들이 잘못 이해한 病理論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의 저술이 이전의 經驗方을 많이 싣고 있는 의서와 이 당시 經驗方이 많이 소개된 산림서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의령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을 하고, 이 책에 나타난 茶山の 병리관을 정리하여 茶山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서학이 의학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당시 '醫'에 관계된 문제를 살펴 볼 것이며,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볼 것이다. 이런 문제는 茶山の 병리관 이외에도 醫者들을 비판하는 여러 구절들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茶山の 醫者들에 대한 태도도 살펴 볼 것이다.

현재 「醫零」의 판본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與猶堂集」에 실려 있는 원고본과 新朝鮮社에서 간행한 「與猶堂全書」에 실려 있는 간행본의 두가지가 있다. 간행본의 내용과 원고본의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간행본에는 원고본의 내용이 많이 빠져 있었다. 원고본의 양끝이 잘려져 나가 한 페이지가 10줄인데, 8줄만 남아 있어서,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편 전체를 빼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茶山の 의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여러 편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원고본을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려 한다.

다음에는 「醫零」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자. 「醫零」은 六氣論, 六氣論二, 六氣論三, 外感論一, 外感論二, 外感論三, 裡證論一, 裡證論二, 虛實論, 虛實論二, 吞酸論, 非風論, 腦論, 劑量論, 時令論, 近視論, 人面瘡論, 反胃論, 煎藥說, 雜說, 雜說二, 雜說三, …八, 製附子法, 集告一, …八, 加減弄本草, 藥露記, 續集一, …五로 총 4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다루어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진다. 의학이론에 대한 비판이 六氣論에서 反胃論까지의 주된 내용이고, 그 뒷부분에는 약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약재 다루는 법과 經驗方이 소개되어 있다.

이 내용의 순서에 따라 茶山の 병리관을 먼저 살펴보자. 그는 육기론에서 내경의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병리론을 비판하였다. “…熱氣가 오는 것은 火가 이긴 것으로 이때 金燥가 邪氣를 받아 肺病이 생긴다…”는 내경의 구절에 대해 반박을 가하였다. 이 구절은 오행 각 기운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 병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가령 위에서 보듯이 火가 金을 이기는 火克金의 원리에 따라서 火에 속하는 熱氣가 오면 金에 배당된 肺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세상에서 가장 燥한 것은 火이지 金은 燥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구절에 나타난 승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한 비판을 다음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 “겨울에 寒氣에 상하면 봄에 溫病이 생기고, 봄에 風에 상하면 여름에 설사가 생기고…” 이 내경의 구절에서는 겨울에 한기에 상하더라도 봄에 온병이 생기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寒도 極에 달하면 熱이 된다는 重陰必陽 重陽必陰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만약 한 계절을 넘길 정도의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병이 생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날 추위에 피부가 바로 상할 수 있으며, 하오에 더위를 먹으면 그날 저녁에 복질이 생길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내경의 이 원리를 비판하였다.

그의 내경이론 비판은 外邪가 침투하는 경로를 말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내경에서 말하는 “邪氣는 形에 머물며 반드시 피부에서 머물러 있다가, 제거되지 않으면 孫絡으로 들어가고, 다시 絡脈으로 經脈으로 들어간 연후에 오장으로 들어가고 腸胃에서 흡수된다”는 외기가 몸에 들어 가는 경로에

대해서, 茶山은 외사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 올 뿐이지 피부를 통해 臟腑에까지 침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風寒이 피부에 머무르며 외기가 경락에 머문다는 醫者들의 말은 귀신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茶山은 외사가 병을 일으킨다는 내경의 이론을 비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외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삼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외사의 오행의 원리에 따른 승부관계를 비판하였다. 가령 火氣가 이기면 金燥가 사기를 받아 肺病이 생긴다는 구절에 대해, 火와 金 사이에는 상극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金보다는 火가 더 燥하다는 이유에서 이들 사이에 있는 승부관계를 부정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외기 사이에 있는 상극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어느 특정한 외사가 몸을 해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외사 중에서 寒氣와 더위에 상하는 경우는 남겨 두었다. 寒氣와 暑氣는 하늘의 때에 따라 나타나는情으로 이것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이 정서가 몸을 상하게 하는 경로를 기존의 이론에서 말하는 경로와는 다르게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세번째 단계에서는 외사가 침입하는 경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외사는 피부와 경락을 통해 장부에 침입하는데, 茶山에 따르면 외사란 호흡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며, 따라서 외사가 장부에까지 도달할 수 없으며, 외사로는 장부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外感보다 內感을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하였다. 외감으로 특정한 장기가 허실해져서 이상이 생기지 않고 다만 혈기의 편패로 장부의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茶山은 외감론에서 외감으로 생긴 병은 심하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내감으로 질병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는 병이 생기는 이유를 血氣 중에서 특하기의 운행에서 찾았다. 기는 元陽의 假名이며, 生養動覺의 근거가 되며, 이 기가 몸의 陰陽을 조화시켜주며, 濕熱이 便勝하지 않게 하여 병이 낫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병리관은 四情理論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정이론은 서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선 茶山の 五行觀을 중심으로 茶山이 서학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보자. 그에 의하면 五行은 만물 중에 있는物에 불과하며, 따라서 오행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행이 만물을 생성할 수 없다. 그는 오행론을 거부하고 만물의 기본 형질로 天·地·水·火를 제시하였다. 천지수화는 주역의 四正卦에서 나온 개념으로, 茶山은 뒤집어도 그 패가 변하지 않는 네개의 패를 기본적인 것이라 하여 사정패를 제시하였으며, 이 패가 만물의 기본 형질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天의卦인 乾은 氣이며, 地의卦인 坤은 土란 주장에서, 茶山이 「天主實義」에서 말하는 四行의 氣火水土와 연관시켜서 四情을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四行을 이해한 방식은 이전의 학자들이 西學의 자연관을 소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연관을 비판하는 차원과 는 달랐다. 그는 우선 四行에서 말하는 만물의 원소는 水·火·氣·土라 말하지 않고, 天地水火란 주역의 개념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天·地·水·火는 아득한 元氣가 갈려서 스스로 형질을 이룬 것이다”고 하여 四元物에 선행하는 元氣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해방식은 四行論에서 氣를 水·火·氣·土 중 한 구성요소로 파악한 것과 비교된다. 茶山은 천에는 기가 가득차 있다고 보았지만, 만물의 기본 형질이 갈려지기 전에 元氣의 형태가 존재함을 말함으로써 天·地·水·火를 포괄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天地水火를 묶는 개념을 四元物이라고 함으로써 四行의 行과는 다른 말을 사용하였다.

茶山은 四行을 서학에서 사용된 개념과 다르게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四行에서 나온 四元性도 다르게 이해하였다. 「天主實義」에서 四行의 요소는 각각이 두 개의 四元性의 요소를 지닌다. 말하자면 火性은 乾熱하고, 水性은 冷濕하고, 氣性은 濕熱하고 土性은 乾熱하다는 것이다. 茶山은 四元物이 하나의 情緒만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書元物에서 천을 특별히 두 가지 情緒를 지닌다고 말하였다. 四元物의 情緒는 六氣論에서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의 범주를 비판하는 데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寒과 暑는 天時之情이며, 燥와 濕은 物情之形이며, 火는 天·地·水·火 중의 한 요소란 뜻인 元物의 본체이며, 풍은 元物로 인해서 생긴 것이란 주장이다. 六氣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風寒暑濕燥火가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서 나타난 그의 元物에 대한 설명과 四元性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水와 火란 元物에 대해서는 그 元物의 情緒가 모습을 갖춘 것은 燥와 濕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었지만, 天에 대해서는 情緒를 먼저 말하고 난 뒤 그 情緒가 모습을 갖춘 것을 말함으로써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했던 것이다. 茶山은 먼저 天을 氣가 가득찬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천의 계절 변화에 따른 情緒를 두 개로 파악하여, 겨울에는 寒의 情緒가 있으며 여름에는 暑의 情緒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寒과 暑는 情緒일 뿐 아직 形을 갖춘 것은 아니고, 이 寒과 暑가 形을 갖추게 되면 寒은 역시 寒이지만 暑는 熱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氣의 寒熱의 情緒는 四元性에서 말하는 氣性인 濕熱과 차이가 보인다. 이처럼 「天主實義」에서 말하는 내용과 구체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茶山은 결론적으로 제시한 것은 「天主實義」의 四元性인 乾·冷·濕·熱과 같은 개념인 寒·熱·燥·濕의 四情이었다.

茶山은 하늘에는 기가 가득차 있고 인체

에도 기가 가득차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에 있는 요소가 인간에도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가 사용한 元氣란 개념으로 자연계와 인체를 모두 설명하였고, 인체와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情緒란 개념을 사용하여 자연과 인체를 연결시켜 이해하려 하였다. 茶山이 인체는 熱과 濕 두가지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데서, 그가 四情의 요소가 인체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茶山은 사정을 한의학에서 말하는 외기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茶山의 四情의 偏勝으로 질병이 생긴다는 주장은, 기존의 한의학 이론에서 말하는 六氣의 偏勝으로 생긴 外邪가 몸으로 침투하여 병이 생긴다는 말과 구별해야 한다. 茶山은 外感論에서 外感으로 생긴 병은 심하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內感으로 질병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경에서 말하는 外感의 경로, 피부의 주리를 통해 經絡까지 이른다는 경로를 비판하면서 外邪는 호흡을 통해서만 들어 올 뿐이라고 하였다. 이런 그의 논리에 따른다면 四情의 偏勝으로 질병이 생긴다는 말이 外邪의 침입이라고 하기 곤란하며, 四情의 偏勝은 몸 내부에서 기가 濕熱이 偏勝되지 않게 하는데 실패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茶山이 한의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비판하는 데 사용한 개념과 범주가 西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五行과 六氣의 범주를 비판한 것이며, 이 六氣의 범주가 무너지면서 이에 따른 여러 한의학 이론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앞에서 茶山이 한의학 이론 뿐만 아니라 한의학 이론을 잘못 이해한 醫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시 민간에서는 귀신이 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醫者들도 마찬가지였다. 茶山의 醫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약과 관련된 논의

에서도 보인다.

茶山은 “약의 무게를 잴 때 반드시 냄새와 맛을 보고 그 경중을 분별해 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하였다. 그는 실패를 들어 가면서 의서에서 말하는 처방의 양과 藥材의 맛이 서로 다를 수 지적하였다. 가령 “일본 황연의 쓴 맛과 寒氣는 당황연의 두 배인 데도 방에 일전이라 한다고 일전을 사용하며, 조선의 황연은 본래 같은 종류도 아니고 또 맛은 박열한 데도 방에서 칠분이라 한다고 칠분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茶山에 따르면 이 시대는 五行이나 六氣에 얽매어 이치를 제대로 분별해 내지 못하는 때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古方을 고집하여 그 명분을 지키기만 급급하여 실리를 경원시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醫者들이 실리를 따지지 않고 구습만을 따르는 경우가 藥材 만드는 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는 술을 약과 함께 다려서 주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茶山은 “약을 먼저 다려 찌꺼기를 제거한 후 술을 조절하여 복용하면 그 주력이 두 배나 된다”고 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삼의 경우도 따로 다려 합치는 것이 인삼의 낭비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醫者들이 이치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구습만을 고집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茶山의 비판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茶山の 醫者들에 대한 비판은 經驗方을 강조하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茶山은 “古方은 모두 간단한데 지금 처방은 너무 혼란스러워 오히려 원본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향촌에서 효과를 보는 단방과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처방을 여러 서적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당시 醫者들이 병의 이치도 따지지 않았을 뿐더러, 병에 대한 처방도 의서에 있는 것만 고집하여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 醫者들의 병이 寒熱을 자세히 분별하지도 않고 “먼저 人蔘, 附子 따위

의 대단히 더운 약으로 시험을 하여 효험이 나지 않으면 다시 망초, 대황 같이 극히 찬 물건을 집어 넣어서”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茶山은 이론이 번잡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이론에 따른 처방도 복잡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간단한 처방인 단방과 經驗方을 많이 소개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그는 서학에 영향을 받았던 자연관으로 한의학 이론을 파악하여 한의학의 이론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를 둔 한의학 이론의 대부분이 非理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재구성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병리관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 이론은 병의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병의 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정도는 되지 못하였다. 그는 한의학 이론의 원리를 따지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 이론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란 관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와 연관된 한의학 이론들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茶山の 한의학 이론에 대한 비판이 경험적인 태도로 행해졌다고보다, 또 다른 원리를 상정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茶山の 자연관이 기존의 음양오행론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은 원시유학의 경전의 자연관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주자 성리학에 얽매인 당시 유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의학 분야에서는 음양오행 원리를 제외한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 즉 유학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나오기 이전의 원시유학 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아닌 체제가 가능하였지만, 한의학의 경전은 한나라 때 음양오행의 원리로 정리된 황제내경이 최고의 경

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경전의 원리를 비판한다면 대안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서학의 자연관의 내용이 서양학문의 소개였고, 그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원시유학 경전에 바탕을 둔 것과는 반대로 서양의학의 용어나 개념들은 원시유학 경전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고,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茶山의 비판적인 태도는 그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발달 : 1900-1925

위스컨신대 김 제 현

I. 서 론

과학의 역사는 과학이 제반 사회적·문화적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서구의 경우 종교, 특히 기독교는 서구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종교와 과학간의 관계는 역사의 진행과 함께 복잡하고 미묘한 변천을 하여 왔다. 과학혁명기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다윈의 진화론의 경우와 같은 기독교 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 발견들은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19세기에 들어 오면서 과학과 신학연구의 전문화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 동안 급속히 발전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

구는 종교의 권위와 교리로부터 과학연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현상 자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프레지어와 타일러 등의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종교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고, 뒤르켐과 마르크스 등은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종교현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19세기에 급속히 이론화, 전문화 과정을 겪는 또 하나의 사회과학 분야인 심리학에서도 시도되었다.

종교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즉 종교심리학은 통상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하였다고 설명된다. 그 하나는 프로이드와 융 등에 의하여 발전한 무의식 및 잠재의식 개념을 통한 종교현상 및 행위에 대한 무신론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William James와 G.S. Hall 등의 미국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된 종교 현상에 대한 記述的, 현상적 연구였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단지 사회심리학의 부수적 과제로 취급되는 종교심리학은 20세기 초엽 특히 미국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되어 종교심리학 학술지가 간행되었고 *Psychological Bulleti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등의 학술지에 종교심리학 분야의 서평 및 문헌목록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은 심리학의 이론화, 실험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1930년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종교심리학은 제임스와 홀 등의 업적을 통하여 간간히 언급될 뿐 그것의 학문적 성격 및 意義의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종교심리학이 기능주의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초기의 기술적, 현상적 연구로부터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판적 연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미국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키고, 나아가서 그 운동의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